



4일 광주 광산구 본량구장에서 열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에서 2회말 도루를 시도한 워리어스의 정병찬이 2루수 김승영이 공을 놓치면서 세이프 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삼성 vs 요미우리

아시아시리즈 8일 부산서 개막... 한·일 챔피언 결승 대결 관심

삼성 코리안시리즈 우승

2012 프로야구의 대미를 장식한 삼성 라이온즈가 일본 최고의 명문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또 다른 가을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중국 등 아시아 5개국에서 6개팀이 참가하는 2012 아시아시리즈가 8일 오후 2시 부산 사직구장에서 개막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아시아시리즈는 11일까지 4일간 계속된다.

홈팀 자격으로 롯데가 출전권을 확보한 가운데 삼성이 지난 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SK와의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7-0 승리를 거두며 아시아시리즈 대표 자격을 얻었다.

사자 군단의 통산 6번째 우승으로 성사된 삼성과 요미우리, 한국-일본 챔피언의 대결이 이번 시리즈의 흥행카드가 될 전망이다.

2005~2006년, 2011년 세 차례 아시아시리즈에 나선 삼성은 지난해 소프트뱅크를 꺾고 한국팀 사상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요미우리는 지난 3일 열린 재팬시리즈 6차전에서 니혼햄을 꺾고 통산 22번째 우승을 차지한 명문구단. 2009년에는 한국 대표로 만난 KIA를 꺾고 아시아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두 번째 아시아 정상 자리를 놓고 벌이는 이번 대결의 또 다른 흥행 카드는 '2012 한국시리즈 MVP' 삼성 이승엽이다. 요미우리는 이승엽이 5년간 생활을 했던 팀이다. 2009년 아시아시리즈에서는 요미우리 유니폼을 입고 KIA와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친정팀 삼성 우승을 이끈 이승엽이 일본 친정팀 요미우리를 상대로 벌일 대결이 관심사다. 하지만 두 팀은 예선에서 다른 조에 편성돼있는 만큼 결승까지 올라야 맞대결을 벌일 수 있다.

삼성엔 차이나 스타즈(중국), 라미고 몽키즈(대만)와 A조에 편성됐다. B조에서는 요미우리와 함께 홈팀 롯데, 퍼스 히트(호주)가 대결을 펼친다.

호주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구대성도 아시아시리즈에 나서 관심을 끈다.

구대성은 2010년 한화에서 은퇴한 이후 호주 시드니 블루삭스 소속으로 뛰고 있지만 이번 아시아시리즈 기간 특별 초청선수 자격으로 퍼스 히트 유니폼을 입고 한국 마운드에 오른다.

한편 각 조 1위 팀이 맞붙는 결승전은 11일 오후 2시 사직구장에서 열린다.

우승팀에게는 5억원의 상금이 돌아오고 준우승팀에게는 3억원이 주어진다. 또 참가팀에게는 5000만원의 출전비가 지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2의 김연아를 꿈꾸며...

4일 고양시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아이스링크장에서 열린 2018 평창 올림픽 대비 동계 종목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2012 회장배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랭킹대회'에서 조정진 선수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하나의 가을야구가 펼쳐진다

무등기 사회인야구

리그별 4강팀 확정

무등기 4강 팀이 모두 가려졌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5주차 경기가 3·4일 본량구장과 무등중학교 야구장에서 열렸다. 지왕리그와 인왕리그 8강전으로 진행된 5주차 경기에서 제일공조, 디스커스, 아도니스, 포프리, 청연한방병원, 나이너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전왕리그와 전남리그에 이어 무등기 4강 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왕리그 남은 두 장의 티켓은 제일공조와 디스커스가 가져갔다.

제일공조는 공·수에서 맹활약한 김상택을 앞세워 헬리우스를 10-2, 5회 콜드승으로 꺾었다. 카오디오와 만난 디스커스는 홈런 두 개씩을 주고 받은 끝에 10-8로 승리를 거뒀다.

인왕리그 경기에서는 아도니스가 가장 먼저 4강행을 확정지었다. 아도니스는 삼호의 료재단과의 경기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4-8로 역전승을 장식했다.

포프리는 8-8로 맞선 5회, 대거 7점을 뽑아내며 판 13를 16-8로 꺾고 4강에 올랐다. 청연한방병원은 블루삭스의 기권으로 자

무등기 리그별 4강 진출 팀

- ◇전왕리그: 자연환경, 허버베이스볼, 준모터 페가수스, 팔도참오리
- ◇전남리그: 화순NH자이언츠, 장성랜드포스, 화순에슬레틱스, 화순야구파크
- ◇지왕리그: 풀가이스, 세한기업재규어스, 제일공조, 디스커스
- ◇인왕리그: 아도니스, 포프리, 청연한방병원, 나이너스

동으로 4강에 진출했다.

나이너스와 워리어스 3부는 화끈한 화력전을 펼치며 공방전을 벌였다. 나이너스가 2회 7점을 뽑아내는 등 8-3로 초반 기선을 잡았지만 워리어스가 메이닝 득점에 성공하며 추격에 나섰다.

워리어스는 10-15로 뒤진 6회말 4점을 따라붙였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1점차 패배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강전 스코어보드

- ◇지왕리그: ▲1경기(5회 콜드) 헬리우스 20000XX-2, 제일공조 14104XX-10, △승리투수: 김상택, △홈런: 김상택(2회1점)·김대근(2회1점)·문원식(2회2점·이상 제일공조)
- ▲2경기(5회 시간제한) 상무카오디오 34001XX-8, 디스커스 34012XX-10, △승리투수: 이상범, △홈런: 방민택(1회2점·5회1점)·이기혁(2회2점·이상 상무카오디오)·이치현(2회3점)·이상범(5회2점·이상 디스커스)

- ◇인왕리그: ▲1경기(6회 시간제한) 삼호의료재단 202000X-4, 아도니스 102302X-8, △승리투수: 천이두, ▲2경기(6회 시간제한) 포프리 152071X-16, 판 13 152000X-8, △승리투수: 박광수, ▲3경기(기권승) 청연한방병원 1111111-7, 블루삭스(기권) 0000000-0

- ▲4경기(6회 시간제한) 나이너스 170133X-15, 워리어스3부 211244X-14, △승리투수: 배동해, △홈런: 배동성(2회2점)·최정재(2회3점)·윤영환(5회2점·이상 나이너스), 김도환(1회1점)·최승환(5회2점·이상 워리어스)

이보미 1타만 줄였어도...

LPGA 미즈노 클래식 루이스에 3R 역전패

박인비 '올해의 선수' 물거품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즈노 클래식(총상금 120만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루이스는 4일 일본 미에현 시마시 긴데쓰 가시고지마 골프장(파72·650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10개를 몰아치고 보기는 2개로 막아 8언더파 64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로 대회를 마친 루이스는 2라운드까지 선두였던 이보미(정관장)를 1타 차로 제치고 역전 우승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우승 상금은 18만 달러(약 1억9600만원)다.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184점으로 선두인 루이스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30점을 보태 2위 박인비와의 격차를 58점으로 벌렸다. 올해 남은 대회가 2개밖에 없어 박인비가 루이스를 추월하기는 쉽지 않아졌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도전하고 있는 박인비는 이번 대회에서 3언더파 213타로 공동 17위에 머물러 올해의 선수 부문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

다.

2라운드까지 이보미에 7타나 뒤져 있던 루이스는 16번 홀(파5)부터 3연속 버디를 낚아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17번 홀(파3)에서 3.7m 퍼트에 성공해 이보미와 동타를 이룬 루이스는 18번 홀(파4)에서는 7.6m 거리에서 시도한 퍼트로 한 타를 더 줄였다.

루이스가 먼저 경기를 마친 가운데 3~4개 홀을 남겨뒀던 이보미는 버디 하나만 보태면 최소한 연장까지 승부를 끌고 갈 수 있었으나 모두 파에 그쳐 1타 차로 준우승했다.

우여하라 아야코(일본)가 9언더파 207타로 단독 3위에 올랐고 청아니(대만)는 7언더파 209타를 쳐 단독 4위를 기록했다. 한동안 슬럼프를 겪은 청아니는 지난달 하나의한 챔피언십 단독 3위로 부활을 예고한 뒤 선라이즈 대만챔피언십 단독 3위, 이번 대회 단독 4위 등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최나연(SK텔레콤)과 서희경(하이트), 재미교포 제니 신 등이 6언더파 210타로 나란히 공동 5위에 올랐다. 1라운드 공동 1위였던 신지애(미래에셋)는 4언더파 212타, 공동 14위다.

/연합뉴스

이정민 서경오픈 우승

이정민(KT)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부산은행-서울경제 여자오픈(총상금 5억원) 정상에 올랐다.

이정민은 4일 부산 아시아드 골프장 파인-레이크 코스(파72·655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1타를 줄여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를 기록한 이정민은 5언더파 211타로 단독 2위에 오른 김혜림(넵스)을 1타 차로 앞서 2010년 5월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이후 2년6개월 만에 KLPGA 투어에서 두 번째 우승을 맛봤다.

스트로크 대회에서는 프로 데뷔 후 처음 우승한 이정민은 상금 1억원을 보태 시즌 상금 3억3334만원으로 상금 순위 4위로 경총 뒤편었다.

김하늘(비씨카드)과 윤채영(한화)이 나란히 3언더파 213타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